

재활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하나?

뇌졸중이 일어난 직후부터 시작한다. 이 기간의 재활은, 뇌졸중의 급성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본격적인 재활훈련을 준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 그러므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

합병증을 예방하여
이전과 비슷한 생활을
영위할 수 있도록
지도합니다.



이 경우의 합병증은
근육이 위축되거나 관절이
움직이지 않고 변형되는 것을
의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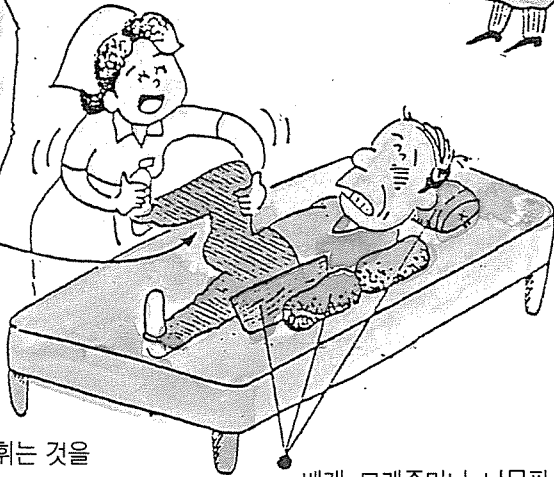


좀 심하군.....
인내심을
가지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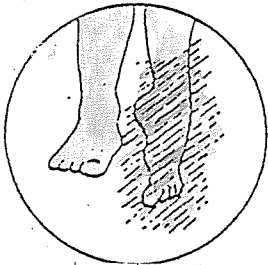
의사를 제외하고 최초로 환자를
만나는 사람은 간호사입니다.
그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.



매일 여러 차례,
움직일 수 있는
만큼 다리를
움직이게 한다.



하지가 마비되어 발이 휘는 것을
막아야 한다.



베개, 모래주머니, 나무판 등을
적절히 사용해서 신체 부위의
위치를 잘 유지하도록 해
오그라드는 것을 예방한다.

간호사의 자상한 감정은 환자와 가족에게
커다란 힘이 되고 위안이 된다.